

실업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제780호

Let's go vacation~



www.okba.net Publisher : Jae Gyun Shin /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최신 대형 복권

GOLD RUSH

복권 1 매로 최대 7번 당첨될 수
있습니다! 145,000여 개의 \$60
상금!

- \$250,000 1 등상 5 개
- 당첨금 지급률 70%
- 평균 당첨률 3.52 대 1
- 2019년 7월 15일 출시



스포츠 베팅 한도

소매업자 여러분에게 OLG의 스포츠 베팅 한도를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소매업자 정책매뉴얼(Retailer Policy Manual) 제 4.13절에 스포츠 베팅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베팅 한도는 **업소 당, 스포츠 복권 상품 당, 고객 1인 당(또는 단체고객 당) 1일 \$100**입니다.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매업자 정책매뉴얼 제 8.8절에 명시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복권을 출력할 때는 반드시 고객이 입회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OLG는 DART (Data Analytics and Retrieval Technology) 시스템을 사용하여 복권단말기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이 신속한 모니터링 및 보고 능력은 저희 OLG가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는 업소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OLG는 스포츠 복권 상품 거래를 매일 감시하며, 베팅 한도가 초과될 경우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장의 복권 담당 직원이 이 정책을 숙지하고 절대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십시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 OKBA 회 장 : 신재균 (Jae Gyun Shin)
OKBA 부회장 : 송명현 (Myeong-Hyeon Song)
- 사업개발팀 : 이주녕 (Brian Lee) brianjn1108@okba.net
- 홍보팀 : 실장 김광일 (Ted Kim) tongilisysj@yahoo.com
- 디자인팀 : 현미영 (Mimi Hyun) mimihyun@okba.net
- 회계팀 : 김세환 (Justin Kim) accounting@okba.net
- 본부협회 : Tel (416) 789 - 7891 / Fax (416) 789 - 7834

- 이사회 : 이사장 이두승 / 부이사장 신영하
- 감사위원회 : 박영하 / 송구영 / 이만석
- 분과위원회 : 장학 분과 / 회칙 분과 / 특별사업 분과
상벌분과 / 선거관리 분과
- 지구협회 : < 광역 토론토 지구협의회 >
Etobicoke 회장 이두승(416)895-1277
Newmarket 회장 금동진(905)836-6429
North York 회장 방성덕(416)221-7091
Peel 회장 이수봉(905)813-1333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905)471-8079
Scarborough 회장 엄종호(416)759-4503
Toronto East 회장 김종범(416)363-9404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416)975-0365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416)604-3116

< 남서부 지구협의회 >
Brant County 회장 김종학(519)756-0099
Halton & Hamilton 회장 장은홍(905)679-4812
London 회장 오세정(519)432-6672
Niagara Falls 회장 김흥기(905)354-1313
Waterloo 회장 최상겸(519)579-8130
Windsor 회장 윤문성(519)326-1832

< 동북부 지구 협의회 >
Durham 회장 이현식(905)579-2500
Huronian 회장 배종민(705)436-2248
Kingston 회장 이강경(613)967-9998
Owen Sound 회장 허창훈(519)323-4311
Peterborough <공석>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www.okba.net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 04 / 마리화나 소매업소 추가 50개 선정
- 05 / 2019 여성의 밤 '온타리오 호수 크루즈 파티'
- 06 - 10 / 변화의 사례 : 선택과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中)
이토비코 지구협회 골프대회
- 11 / 한인사회 정신건강 진단 설문 조사
- 12 / 마리화나 소매업소 추가 50개 선정 <4면에 이어>
- 13 / 편의점 술판매 현장 목소리 원탁회의
마리화나 소매업소 추가 50개 선정 <12면에 이어>
- 14 - 15 / 편의점 매출 등락폭 큰 10대 상품군
- 16 / 모국, 베이핑 카페 우후죽순
- 17 / 협회/조합 직원 한식구 7월 19일부터
편의점 술판매 현장 목소리 원탁회의 <13면에 이어>
모국, 베이핑 카페 우후죽순 <16면에 이어>
- 18 / 협회 / 조합 직원 한식구 7월 19일부터 <17면에 이어>
조합 골프대회 고객사은 개념 첫 도입
- 19 / DIRECTORY
- 20 ~ 23 / K.B.A. 협동조합 7월 스페셜

10월 오픈 예정, 경합 시 추첨은 8월 20일

[마리화나 소매업소 추가 50개 선정]



온주 정부가 이미 허가내 준 기호용 마리화나 25개 소매 업소에 이어 오는 10월 경에 50개를 추가로 허가해줄 계획이다. 신청자들은 재정 건전성과 판매 공간 확보 등 정부가 제시하는 요건을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발표는 지난 6월 26일에 나왔다. 온주 정부가 최초로 허가를 내 준 것이 지난 4월 1일자였는데 이때 25개를 시범적으로 허가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 중 일부가 4월 1일 오픈을 하지 못해 벌금을 부과받는 등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다.

첫 개시했던 25개 허가 취득 대상자들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추첨을 통해서 선정되었다. 작년 10월에 이미 소매 판매가 온주에서는 시행에 들어갔고 이때는 정부 독점 온라인 판매만 가능했다. 정부 운영의 온라인 소매업소는 Ontario Cannabis Store라고 불린다. 그런데 당시 민간 소매업소 운영을 신청한 25 명의 지원자 추첨 선정 방법이 이후 구설수에 올랐다. 능력이나 장단점 등의 비교를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추첨으로 뽑았다는 것이었다.

한편,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른 주의 경우, 편의점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뉴펀들랜드/레브라도는 24개 소매업소가 선정됐으며 이중 한 곳이 편의점이다. (*레브라도 시티의 토빈스미니마트Tobin's Mini Mart라는 곳

인데 실험뉴스에 모범 업소로 소개도 했었다. 실험뉴스 768호 2019.1.16) 지난 여름에는 켈거리의 한 주유소 병설 편의점에도 마리화나 취급 허가가 내려졌다.

온타리오가 처음 허가를 내준 25개에는 단 한개의 편의점도 없었다. 그래도 여전히 편의점 업주들은 기대를 가지고 관망 중이다. 협회 회원들도 기대감을 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여러 질문 중 하나는 업소내 같은 공간 한켠을 마리화나 취급 비즈니스로 허가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공간으로 분리돼야 하는냐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무조건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

어느 쪽이든 알리망타시용 쿠쉬타르와 같은 체인 편의점은 유리한 입장을 가진다. “우리는 정부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며 마리화나를 취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종업원 훈련 특히 연령대를 불문하고 어떤 손님이라도 연령 확인하는 것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회사 창립자이자 CEO 알랭 부샤르가 2017년 연차총회때 자신만만하게 했던 말이다.

올해 2월 쿠쉬타르는 국내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마리화나 제조사인 캐노피그로쓰사(Canopy Growth Corporation)와 다년간의 상표사용 라이선스(trademark license) 계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실험뉴스 기사로 소개. 실험뉴스 771호 2019. 3.13) 두 회사가 설립한 소매업소는 1차 허가받은 25개 업소 중 하나로 선정됐고 온타리오 런던에 Tweed라는 간판을 달고 오픈했다. Tweed는 ‘Weed’ 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는 데 마리화나를 속칭으로 부르는 표현이 바로 weed이다. <12면에 계속>

지금 전화주세요!

BROKERTEAM
INSURANCE

박효진(Roland Park)
Cell. 416-985-5287

Main : 905-770-8828
Fax : 905-770-8851
roland.park@brokerteam.ca

실험 단체보험

2019 여성의 밤 '화려한 부활' 온타리오 호수 크루즈 파티



- 일시 : 2019년 8월 15일 (접수 5:30pm / 출항 6:00pm)
- 장소 : 온타리오 호수 선상
- 참가신청 : 각 지구협 회장에게 신청
- 참가자격 : 실험 정회원 (비회원은 물론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회원도 절대 참가 불가)
- 참가비 : \$60

CLOUD SERVER를 통한 포스시스템 유지관리와
실시간 고객 매출등의 데이터 정보교환 가능

“1Solutions와 함께 하시면
성공이 보입니다!”

포스 가격

\$2500 + Tax

(바코드 스캐너, 금전함,
소프트웨어 포함)

1 SOLUTIONS
SYSTEMS CORPORATION



빠르다!
간편하다!
저렴하다!

Made in Korea

OLG 온라인 로또
바코드 합식 시행



www.1solutions.ca
info@1solutions.ca

Toll Free. 1(888) 554-7355 Korean(ext 4) Direct Line. (905)560-4511 (416)900-7533 Fax. 1(888)554-0409

선택과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中)

온주 술판매에 대한 특별자문관 휴즈씨 보고서

TBS (The Beer Store) 民營



류판매 시스템 실태 관련 특집 기사를 보도하면서 비어스토어를 “온갖 매력을 다 가진 냉장 창고” (all the charm of a cold-storage warehouse) 라고 비꼬아 묘사한 바 있다.

- TBS의 거의 모든 매장은 쇼핑 분위기가 1세기 전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제품은 벽 뒤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손님은 로고를 보고 고른다. 2015년 이후 1억 달러를 투자해서 분위기를 쇄신했다고 하는데도 전반적 이 쇼핑 체험은 크게 달라진 모습이 아니다.

- 2017년에 TBS는 온라인 쇼핑을 가동했고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게 했지만 2019년 현재 이 서비스는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 일부 매장에서는 손님이 직접 물건을 보고 고를 수 있게 한 곳도 있다.

- 온타리오 맥주 시장을 거의 독점 장악하고 있다. 450개 소매판매망을 거느리고 있는 TBS는 온주 전체 맥주 매출의 70%를 점유한다.

- 이전 자유당 정권과 맺은 계약이 MFA(Master Framework Agreement)인데 이 계약하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다.

- 6개 팩을 초과하는(*12개 팩, 24개 팩 등) 물량의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한다.

- 바, 레스토랑 등 요식업계에 공급하는 맥주의 공급권을 독점한다.


- 빈병수거 프로그램 ODRP(Ontario Deposit Return Program.)하의 빈 병 수거권을 독점한다.

- MFA계약에 따르면 향후 주류 소매업소 신규 허가는 450개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비어스토어와 같은 모델은 일반적인가?

세계 최대 규모의 술 제조사 몇개가 맥주 소매시장의 70% 이상을 거의 독점에 가깝도록 장악하고 있는 모습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엄청난 이익을 거두지만 소비자와 여타 맥주 제조사와 소매업체에게는 불리할 뿐이다.

- 2015년에 온주 정부가 내놓은 맥주소매업 현황(Beer Retailing)보고서에 의하면 TBS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그저그렇다’(basic)였다. 지난 5월 3일자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마리카나 합병화와 온주주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p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2px; border-radius: 5px;">교통사고, 개인 상해</p> <p style="font-size: 8px;">과실 유무와 상판없이 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 최대 보상, 낙상, 정부 과실 보상 소송</p>	<p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2px; border-radius: 5px;">교통위반 티켓</p> <p style="font-size: 8px;">과속, Stunt Driving, 무보험, 신호 위반, 행스니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p>	<p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2px; border-radius: 5px;">형법</p> <p style="font-size: 8px;">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Drug) 보석(Bail) 등 모든 형법 위반</p>
--	---	--

- * 형법
- * 소액재판
- * 복권 판매법


- * 가정법
- * 세권, 세입자 분쟁
- * 담배 판매법

- * 민사소송
- * 주류 판매법
- * 회사 설립

* O.D.S.P. 신청(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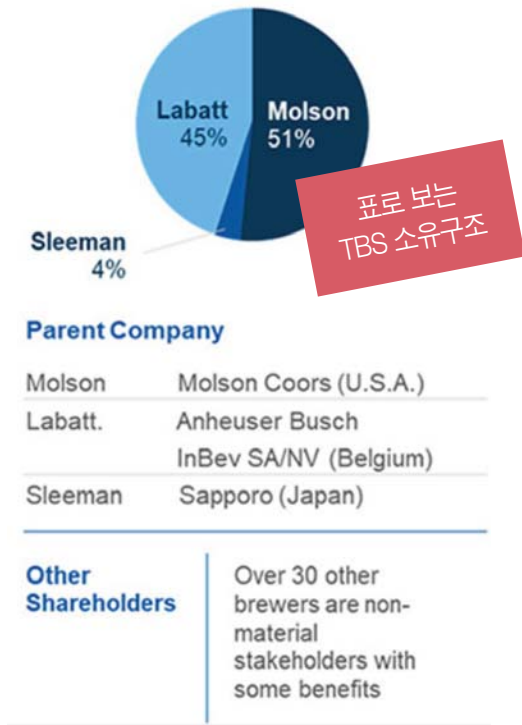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Shiv Passi
법무사 : Adam K. H. Yoo, David Song, Mark Ginz
Kate N. Han, Hassanein Bhaloo,
Earl Francis Dacara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18 Finch Avenue West, Suite #100, Toronto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매장들은 인기 제품 판촉을 위한 진열에 그치고 있고 이 제품들도 3개 소유 회사의 제품들이다.



WRS (Winery Retail Stores) 民營



- 와인전문 소매업 채널로 온타리오산 포도 품종으로 제조된 와인을 판매하는 전문 업소이다. VQA(정부 품질보증 승인표기)를 득한 제품이든 아니든 온주산 와인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00% 온타리오산 포도 원액일 수도 있고 수입 원액일 수도 있지만 수입 원액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온타리오 산이 최소 25%는 혼합돼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한다.

- 현재 이런 방식 즉 온타리오산 와인 소매업소수는 총 292개이며 이중 220개가 식품점에 입점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LCBO Agency Stores (LCBO대리점) 民營

- 1962년에 대리점 제도 시행. 민간 소매업소가 지역 커뮤니티를 배경

Authorized Zippo Dealer

윈도매장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Ask for Free Zippo Display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으로 LCBO 대리점 역할을 하는데 LCBO 정식 매장을 열기에는 동네가 규모가 아주 작은 곳을 중심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 현재 209개가 영업중이며 대개 식품점, 편의점, 주유소 또는 관광객 서비스 업소 등이 맡는다.

- LCBO가 대리점 업소에 대한 홍보 관측을 대신 해주며 규제나 통제도 동시에 책임을 진다. 대리점은 술 공급을 LCBO뿐 아니라 TBS에서도 받을 수 있다.

Grocery Stores(식품점) 民營

- 2015년 온타리오에서 맥주와 사이더를 식품점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 캐스린 윈 수상의 자유당 정부 시절) 정부는 이듬해인 2016년에 일부 식품점에서 와인도 취급하도록 주류 취급 범위를 확대했다.

- 현재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식품점은 총 364개이며 특정한 허용 기준 예를 들어 일정 공간 이상이 주류 판매 전용 공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등의 정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 상품(full line)을 갖춘 종합 식품점이어야 한다.

- 맥주 공급은 LCBO에서 독점한다.

제조사 직영 소매업소 民營

- AGCO 인허가 규정하에 모든 양조장, 와인너리, 사이더 제조사, 증류소 등은 제조 공장 영역 내에서 소매업소 직영이 가능하다. 지난 시절 한때 수제 알콜 음료 판매가 붐을 이루자 이런 스타일의 업소가 급속히 성장했다.

- 대부분 영세한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 소비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맛의 술을 즐길 수 있다. 어떤 업소들은 산업단지 내에 소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업소들은 지역 관광 명소나 환대산업의 중심지에서 핵심적인 매력의 하나로 위치를 굳힌 곳도 있다. 이런 지위를 가지다 보니 지역 커뮤니티에서 비중있는 경제적 기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면세점(Duty Free Stores) 民營

- 온타리오주에 총 15개 민영 면세점이 있다. 공항과 국경에 소재하고 있는데 캐나다를 떠나는 여행객이 이곳에서 면세 가격으로 맥주나 와인 혹은 독주 등을 소핑할 수 있다.

- 민간 영역에서 증류주(毒酒)를 취급할 수 있는 곳은 제조사가 직영하는 소매업소 이외에는 이들 15개 면세점이 유일하다.

4. 선결 과제들

1) 소매 시스템의 복잡성

온주 알콜 소매 시스템은 수 세대에 걸치면서 복잡한 규정, 법의 헛점, 특권 등으로 점철되면서 얼키고 설 키며 꿩먹고 닭살 상태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을 고친다는 것은 복잡적 여파를 노정시키며 다양한 영역, 예를 들면 소비자 가격, 주정부 수입, 주요 경제 부문 특히 농업과 관광 영

역에서의 생존력 등에 의도치 않았던 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획기적 정책 개선을 시도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어 왔으나 이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되지 말아야 하며 단계적으로 신중히 접근하되 예기치 않은 상황 대처를 위해서 정책적 융통성의 여지도 남겨둬야 한다.

2) 맥주 시장 과점(寡占) 체제

맥주 소매 채널인 비어스토어가 다국적 거대 기업 3개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은 이미 밝혔다. 비어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들 3개사의 것임은 놀랄 일이 아니다. 수많은 다른 경쟁사를 희생시키며 단지 몇개의 맥주회사만이 특혜를 누리는 이같은 시스템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도 없다. 시급히 해결할 과제다. 온주 주민 73%가 12개 또는 24개 팩 맥주를 일반 식품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기를 원한다. 68%는 모든 식품점들이 주류 취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3) 소자영업의 주류취급 봉쇄

현행 제도하에서는 스몰 비즈니스가 주류 판매를 거의 대부분 봉쇄당하고 있다. 관(官)에서 운영하는 LCBO의 대리점들과 극히 일부 선택받은 식품점을 제외하고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봉쇄정책의 배후에는 소자영업에 대한 불신 즉, 이들이 술을 취급해도 좋을 신뢰도가 없다는 주장이 자리하고 있다. 결국 대형 소매채널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로 소자영업의 혁신의 기회가 원천 봉쇄된 것이다. 이들도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택과 경험의 폭을 확장하는데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다. 온타리오는 모든 다양성을 겸비한 곳이고 이 매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4)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 기회 차단

대부분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주류판매 소매업소의 증가는 해당 지역의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최근 전국소매업협회(RCC ; Retail Council of Canada)의 보고 자료를 보면 B.C.주가 주류 취급 소매업소 허가를 확대하자 해당 소매업소들의 연평균 매출이 88만 달러가 증대됐다는 것이다. 온타리오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를 토대로 추산하건데 온주 GDP는 연평균 35억 달러가 증대될 것이다. 소매업 주

(주) 하이쿨텍
냉동·히팅

“신속하고 쿨한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Canada Heating & Cooling Licensed Technician



HI-COOL TECH
에어컨 설치 문의 환영
김순석 (Peter Kim)

전문적인 기술자가 뭉쳐 기술 시너지
효과 (Synergy Effect)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 업소용 - 냉동, 히팅, 에어컨, 워킹콜러/후리저, 닥트, 케노피
- 가정용 - 냉장고, 히팅, 에어컨, 전기, 배관 외
- 상업용 - 공장, 상가 및 교회 건물관리 (냉난방 시스템 외)
- 세탁전문점 장비 일체 수리
- 자동차어, 수중모터 및 보트엔진 수리 외

장거리 출장수리 가능

신용과 책임을 우선 합니다

416.909.7114

류 판매 확대에 의한 고용 창출은 9,100명 가량 늘어날 것이고 이는 허가 받은 업소 당 2.3명 꼴이다.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온타리오산 맥주와 사이더(*cider; 달달한 사과주) 산업 역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인위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의 취급을 소매업소에 맡기면 해당 제조업체들에게는 다대한 기회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이들 업체들은 영세해서 판로가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어스토어 채널이 상장(上場)수수료(listing fee)를 내기만 하면 이들에게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영세한 회사들에게 수수료는 비싸다. 그래서 한정된 판촉 기회만 주어질 뿐이다. 만약 일반 소매채널에 문호를 개방 해주면 온타리오의 영세 맥주, 사이더 제조사들에게는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는 용이한 기회가 제공되며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 빈약한 소매 채널

온타리오는 술 구입과 관련한 소비자 편의성 측면에서 보면 국내에서 최하위다. 인구 1만 명 당 기준(18세 이상)으로 술을 살 수 있는 소매 채널은 2,4개로 전국 평균 5.9에 비해 형편없이 열악하다. 전국 평균에 맞추려면 지금의 규모에 4,000개를 더 보태야 한다. 퀘벡주하고 맞추었다면 11,500개를 신규 오픈해야 하는 실정이다.

주류 취급 소매업소 수의 적정성은 공정성과 관련한 이슈다. 도시 거주민이 아니거나 도시에 살더라도 승용차가 없거나 대중 교통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면 술 한병 사러 비어스토어 혹은 LCBO를 가는 것이 고통거



(18세 이상 인구 1만명당 기준)

리다. 정부는 주민들이 술을 사러 그렇게 먼 발품을 팔지 않고 집 근처에서 쉽게 술을 구입하도록 해 줘야 한다.

6) 소비자의 시간손실(경제적 희생)

TBS는 공급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자주 강조한다. 중앙관리 공급 시스템 하에 소비자들의 돈을 절약해 준다고 하는데 TBS를 장악하고 있는 맥주 회사의 돈만 절약시켜주고 인근 비어스토어 매장까지 상당한 거리를 가야 하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이 불편함이 요구하는 경제적 희생을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 규모다. 실제로 재무부가 이

DUKE'S
Freshly Crafted Smoked Meats

천연 통째 재료 훈제육
소량의 설탕 사용

열리지 않은 신선한 돼지고기 | 천연의 통째 재료 | 특별한 나무로 실제 훈제 | 소량 분배 생산 표시

193

DIRECT TO STORE DELIVERY | CONTACT: E: customerservice@metro360.ca | Toll Free: 1-888-639-7868

Big's

단백질 가득! 맛과 향이 풍부!
시드(SEED) 스낵!

직화구이 | 최고급 점보 씨앗 | 풍부함 맛

DIRECT TO STORE DELIVERY | CONTACT: E: customerservice@metro360.ca | Toll Free: 1-888-639-7868

를 계산해봤는데 연간 2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감추어진 희생을 없애고 윈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할 정부의 의무가 있다. (*다른 상품 쇼핑을 하며 술도 곁들여 살 수 있는 여건을 의미함.)

7) LCBO, 정부의 값진 자산으로 유지

LCBO는 와인 소매 판매에 있어 온주의 핵심 채널이다. 전체 와인 매출의 83%를 소화하고 있다. LCBO는 또 독주(spirits)의 주요 소매 판매처이자 도매상 역할을 하고 있다. 온주산 증류주를 포함한 독주는 온타리오 음료 시장의 핵심 부문을 차지하는데 -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로 - 연간 LCBO에서 판매되는 독주 매출액은 24억 달러를 넘기고 있다.

LCBO는 온주 주민으로부터 변함없는 호평을 받고 있다. LCBO를 통해 확보한 수익은 병원, 학교를 비롯한 사회 기간 시설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민영화해서는 안된다. LCBO는 그대로 두고 민영 소매채널을 더 확대함으로써 LCBO에도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LCBO는 도매상으로서의 기능이 확대되는 것이어서 상호 이익이 된다.

5. MFA (Master Framework Agreement)

2015년에 자유당 정부가 비어스토어(TBS)와 다시 말해 TBS를 장악하고 있는 3개 맥주회사인 몰슨, 라바트, 슬리만과 계약을 맺는다. 일명 MFA라고 알려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다. 다국적 민간 맥주회사가 컨서시엄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소매채널 TBS에게 온타리오의 맥주 유통과 관련한 10년에 걸쳐 거의 독점에 가까운 특혜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한마디로 TBS이외의 추가적인 맥주 소매 채널 신규 진입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희생만 요구되는 세계에서 보기드문 정부와 민간 사이의 딜이라 하겠다.

본인(*Hughes씨)이 보기에 이 계약 MFA는 민간 회사의 이익을 온타리오의 소비자, 납세자, 소자영자 보다 우위에 두는 계약이다. 온타리오 주민에게는 형편없는 계약으로 소비자 편의성, 공정 경쟁, 스몰 비즈니스 성장을 향후 남은 6년 동안 외면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이 왜 나쁜가?

- 가격 경쟁 제약: 단일 가격제를 고수토록 강요한다. 동일 품목을 동일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 통일화 정책이 적용된다. 이는 정부의 권한을 앞서는 정책이며 반경쟁적이고 소비자들의 경제적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의미다.

- 벌크 판매 독점: 12개 및 24개 팩과 같이 벌크 단위 구입은 오직 TBS에만 가능하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벌크로 구입할 경우는 할인 가격으로 돈이 절약되는데 이 효과를 보기 위한 구입처가 오직 TBS뿐이라서 독점적인 특혜를 누리며 큰 매출을 올리는 것이다.

- 진입 장벽: MFA에 의하면 주류 판매 소매처는 새로 오픈한다 하더라도 450개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편의점이 술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025년까지는 정부가 신규 오픈을 풀고 싶어도 450개를 초과해 허가를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 열악한 쇼핑 환경: 2018년 전까지 1억 달러를 투자해 TBS매장 쇼핑 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이행은 했다. 하지만 쇼핑객들의 쇼핑 경험은 92년 전과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2025년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특별히 쇼핑 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지배 권을 가진 3개 회사의 제품만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 중소 맥주제조사 성장 제약: TBS에서 중소 맥주제품의 매출 점유는 고작 2%가 채 안된다. LCBO는 10%, 일반 식품점은 15%를 차지한다. 비록 MFA가 온타리오 중소 맥주제조사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지만 결과는 초라하다.

- 자유로운 성장 기회 제한: 완전 자유 경쟁 체제만이 중소 제조사의 발전을 담보하는 유일한 영업환경이다. 그러나 지금의 TBS 통제하의 중소 회사는 발전 기회에 명백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 몰슨과 라바트의 위세: MFA는 중소 회사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사외 이사, 비어 옴부즈만 제도 등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사회 절대 다수는 2개의 대주주 즉, 몰슨과 라바트가 장악하고 있다.

이상으로 MFA의 정체를 살펴봤다. 결론적으로 다시 요약하자면 온주 주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가질 수 없는데 그게 다 MFA때문이다. 온주 주민들은 변화를 맞을 준비가 돼 있다. TBS는 새롭고 역동적인 영업 환경, 편리하고 경쟁에 제약없는 제도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이토비코 지구협회 골프대회

2019 이토비코 지구협회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7월 24일(수) 오후 1시
- 장소 : Piper's Health Golf Club
(5501 Trafalgar Rd., Milton ON)
- 참가비 : \$120 (그린피, 저녁식사 포함)
*골프공 1박스 무료 제공

참고사항 : 신청 마감은 7월 15일까지이며 지구협회장에게 연락바랍니다. (416-895-1277)

이토비코 지구협회장 이두승

한인사회 정신건강 진단 설문 조사

비영리기관 흥폭정신건강협회 주관

비영리기관 '흥폭정신건강협회'(Hong Fook Mental Health Association)라는 기관이 있다. 1982년에 토론토에서 설립돼 아시아인 커뮤니티 주민들의 정신 질환 관련 상담과 치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봉사를 하고 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서구사회에서 정착하는데 특히 아시아계 이주자들의 어려움이 크고 이때 문에 정신 질환 또한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창립한 흥폭은 이후 현재까지 아시아인 캐나다인들에게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 흥폭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접속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만이 아니라 주위의 지인들과 친지들에게 참여를 권유해 의미있는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문조사 사이트는 <https://www.surveymonkey.com/r/>



S9HWH9J 이다. 한인사회 정신건강 정책 수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사는 한국어 버전도 있으므로 쉽게 응할 수 있으며 성명이나 주소를 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익명은 자동으로 보장된다.

흥폭정신건강협회 연락처

3320 Midland Ave., #201, Scarborough, ON, M1V 5E6
TEL: (416)493-4242

노스욕 사무실(1751 Sheppard Ave., E. 페어뷰몰 맞은편)
한국어 상담도 가능 ■



캐나다한인여성회 2019년 7월 프로그램

사전등록 필수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지참

전문 유아교사와 함께하는 알찬 써머캠프

- 일시: 7월 2, 3, 4일 (화, 수, 목) 총 3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30분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유연, 최성혜 (문의: 416-340-1234)
- 내용: 전문 유아교사와 함께하는 음악과 놀이, 미술, 요리, 신체활동, 구연동화 등의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4-6세의 어린이를 위한 캠프

- ✓ 선착순 20명 (대상: 4-6세) / 한국어 진행
- ✓ 등록비 \$30 (간식 및 재료비 포함)
- ✓ 오전 9시30분부터 Drop off가능

'착한사람 콤플렉스' 탈출법

- 일시: 7월 8, 15, 22일 (월) 총 3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가정상담원 박민희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착하지 않아도 괜찮아
2. 반복되는 대인관계에서의 상처
3. 남들에게 쏟는 관심과 에너지를 나에게로 돌리기

KCWA 노스욕센터 사무실

5075 Yonge St, Suite 401, North York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540 Finch Ave. W, 2nd FL North York

너와 나의 소중한 시간

- 일시: 7월 9, 16, 23, 30일, 8월 6, 13일 (화) 총 6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가정상담원 김진옥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초동자녀의 발달 특성
2. 새로운 세상-학교, 자녀 그리고 부모참여
3. 내 자녀의 또래관계 발달 및 특징
4. 자녀의 진로를 위한 부모의 역할
5.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우리가족시간"
6.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실천 계획서 만들기

혼자하는 영주권카드 갱신

- 일시: 7월 9일 (화) 오후6시 - 오후8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영주권카드 거주무 규정
2. 영주권카드 신청 및 갱신 안내
3. 준비 서류와 진행
4. 신청서 작성의 실제
5. 사례 나누기 및 질문과 답변

주거용 및 상업용 임대차 계약

- 일시: 7월 23일 (화)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이선경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온타리오 임대차 관련 법률
2. 임대차 계약의 특성
3. 주거용과 상업용 임대차 계약의 차이
4. 문서관리 및 공자 등의 통보 절차
5.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점

캐나다 시민권 시험 준비반

- 일시: 7월 11, 18, 25일 (목) 총 3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
2. 캐나다의 역사, 근현대사
3. 캐나다의 정부, 사법시스템
4. 캐나다의 상징, 경제, 지리
5. 문제풀이

무료이동진료

- 일시: 7월 23일 (화) 오전10시 - 오후3시
- 장소: KCWA 노스욕센터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주명숙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자궁경부암 검사
2. 질염검사
3. STI 검사
- *선착순 15명(사전예약 필수)
- *OHIP카드 없이도 진료 가능
- *통역서비스 제공

커뮤니티 자원봉사

- 일시: 7월 13일, 27일(토) 오전10시 - 오후2시
- 장소: Good Shepherd Ministries
- 문의: KCWA캐나다한인여성회 (416-340-1234/ 416-340-0838)

KCWA캐나다한인여성회 순회 상담 서비스 안내

- 일시: 7월 15일 (월) 오후1시30분 - 오후 4시30분
- 장소: 토론토 총영사관 (555 Avenue Rd, Toronto)
- 문의: KCWA캐나다한인여성회 (416-340-1234/ 416-340-1777)



Funded by: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Financé par:
Immigration, Réfugiés
et Citoyenneté Canada



주토론토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4면에 이어) **마리화나 소매업소 추가 50개 선정**

그리고 이 단어 WEED 는 토론토주식시장인 TSX에 상장된 코드명이기도 하다.(뉴욕주식시장인 NYSE에는 'CGC'로 상장돼 있다.) 지난 5월에 오픈했는데 월마트를 중심으로 LCBO, 비어스토어, 영화관, 팝보이 등이 함께 있는 대형 쇼핑몰에 들어서 있다.



▲ 쿠쉬타르와 캐노피 그로쓰가 제휴해 온타리오 런던에 오픈한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업소 트weed(Tweed)의 외관과 내부 모습. 지난 5월 17일날 오픈했다.

개점 당시 두 제휴 회사는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다. “쿠쉬타르는 캐노피 그로쓰의 마리화나에 대한 전문성에 의존하고 연령확인을 요하는 제품을 안전하고 책임성있고 준법정신을 철저히 발휘하며 판매할 것을 목표로 삼는다. 두 회사 모두 캐나다 회사이자 글로벌한 기업이며 지금 1개 업소로 첫 시작을 하지만 세계로 뻗어나갈 거대 시장의 첫발을 디딘 것이다.”

현재 쿠쉬타르의 회장 겸 CEO인 브라이언 하나쉬씨는 다음과 같은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쿠쉬타르는 캐나다 마리화나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정부가 독점운영하는 온라인 채널인 OCS와 우리같은 민간소매업체가 결속력과 화합을 가지고 공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공중 보건과 안녕을 담보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이다.”

온주주류사행업감독위원회(AGCO)는 2차 선정 대상 42개소 허가를 위해 역시 추천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추천일은 8월 20일로 잡혀 있다. 나머지 8개소는 원주민 보호구역 몫으로 별도 절차를 밟아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이번 추천의 지원자들은 추천에 앞서, 별도 공간 확보와 운영 관련한 재정능력 등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 지원자의 하나인 마리화나 제조사 에메랄드헬스케어퓨티브(Emerald Health Therapeutics)은 캐나다 최대의 주에서 의미있는 매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입지를 확보할 기회라며 들뜬 모습이다. 이 회사 회장 앰타 딜론씨는 “온주에서 처음 25개 소매업소 허가가 있고 이들이 영업을 개시한 이후 전체 마리화나 매출이 두배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보다는 직접 매장을 찾아가는 오픈 라인 구매를 더 선호하는데 버드텐더(budtender)와 말을 섞고 설명도 들으며 대인 접촉을 한다는 즐거움 때문”이라는 것이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오프라인 매장이 온타리오에 더 많이 오픈하고 전국적으로 합법적인 마리화나 매출이 증가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버드텐더(budtender)란?
 술집의 바텐더(bartender)에서 연상되는 마리화나 업계의 용어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초를 판매하는 전문 종사자를 일컫는 말이다.
 A recreational or medical cannabis dispensary worker who sells and is knowledgeable about various marijuana products.

온주 정부가 최초 허가 범위를 고작 25개소로 결정할 때 그 이유를 물량 공급의 제한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하지만 이후로 공급 상황이 호전돼 이번의 50개 추가 허가 조치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지난 6월 20일 부분 개각 때 전임 빅 피델리 재무장관 자리를 이어받은 로드 필립스(Rod Phillips)신임 장관은 “온주 내에서 추가 소매업소 오픈을 추진하며 시안을 신중하고 책임감있게 접근했다”면서 “민간 비즈니스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통해 지하 시장을 퇴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장관은 또, 전국적인 공급물량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소매업소 추가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 신임 로드 필립스 재무장관(왼쪽)과 신임 더그 다우니 법무장관. 마리화나 소매 판매 정책의 핵심 결정권자들이다.

기호용 마리화나 정책과 긴밀한 소관 부처의 하나인 법무부의 수장 더그다우니(Doug Downey) 장관은 한 성명에서 “단계적인 접근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신임 재무장관과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편의점 술판매

협회, 발언 주도하며 큰 공감 모아 현장 목소리 원탁회의



▲ 왼쪽 두번째 와이셔츠 차림이 베쓰렌펠비 장관이며 오른쪽으로 심기호 조합 부이사장, 신재균 본부협회 회장이 앉아 있다.

편의점 주류 판매 허용 정책과 관련해 업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원탁회의가 지난 7월 9일(화) 피커링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Liverpool John's ; 1294 Kingston Rd, Pickering) 온주 재무 위원회 (Treasury Board)가 주관했으며 위원회의 피터 베쓰렌펠비(Peter Bethlenfalvy)회장이 직접 회의를 이끌었다.

주로 독립편의점 업계의 업주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15명 중에 협회 측은 본부협회 신재균 회장과 조합 심기호 부이사장이 동석했다. 또한 회장의 지역구가 피커링-엑스브리지(Pickering-Uxbridge)여서 이곳 주민인 전임 오승진 회장도 함께 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협회가 잡았다. 불법담배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한때 2,700여 업소 회원들이 현재 1,000여 회원으로 격감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트랙픽 유발을 통해 어려운 편의점 여건을 타개할 가장 합당한 대책은 비어 와인 판매 정책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발언의 주도를 협회측이 선점하며 회의가 시작되자 다른 비한인계 참석자들도 동조하는 발언을 쏟아냈으며 편의점 술판매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며 질문들이 이어졌다. 협회는 또, 연령체크 성실도에 있어서 편의점 채널이 LCBO, 비어스토어보다 더 준법정신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통계를 제시하며 편의점 신뢰도를 강조했다. 또, 영세 편의점의 입장을 고려해 지나친 제약조건을 부과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회의 후 협회는 연령체크 성실도 통계 자료를 회장 보좌관실에 이메일로 송부했고 정책 추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반응을 얻었다.

(17면에 계속)

〈12면에 이어〉 마리화나 소매업소 추가 50개 선정

다우니 장관은 전임 빅 피델리 재무장관의 의정보좌 의원을 역임하면서 연초에 협회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류판매 정책에 관한 협회의 입장을 경청한 바 있다. 장관은 “물량 공급의 원활함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소매업소 허가를 남발할 수는 없는 일”임을 강조했다.

마리화나 산업에서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조언을 하는 한 연구소의 부책임자는 온주 정부의 마리화나 판매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며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정부가 불법 시장을 박멸하고 싶다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아무때고 시간 구애없이 합법적인 마리화나 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말은 물량문제만 순조롭게 해결된다면 정부가 보다 공격적으로 소매업소 수를 증대시키자는 주장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정부가 독점하는 온라인 판매 시스템도 개선할 여지가 더 커진다. 원주민 지역에 할당해놓은 8개를 제외한 42개소의 허가받은 지역은 13곳이 토론토 시, 6곳은 광역토론토, 11개는 서부, 7개는 동부와 북부 그리고 케노라, 노스베이, 수생모리, 선더베이, 티민스에 각각 1개씩 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적으로 고른 판매를 우선 원칙으로 삼았으며 인구수 비례는 무관하다고 한다. 원주민 지역에는 7월 중에 착수한다는데 먼저 신청하면 먼저 허가해주는 선착순 제도이며 추첨방식은 아니라고 한다. 이번 50개 추가에 편의점도 포함되는지 지켜볼 일이다. ■

TOP 10

구색맞추기의 중요성

편의점 매출 등락폭 큰

10대 상품군

TOP 10 CATEGORIES BY SALES	Latest 52 Weeks, ended Feb 2, 2019			
	\$ Sales	\$ Vol % Chg	Units	Units Vol % Chg
EXTREME ENERGY DRINKS	299,048,241.0	8	107,112,760.1	8
SALTY SNACKS	234,123,170.0	6	86,995,650.1	0
FLAVOURED SOFT DRINKS	209,949,444.0	2	116,084,462.8	-1
CHOCOLATE	177,771,887.0	2	83,233,291.3	0
MILK	146,344,253.0	-3	36,557,917.3	-5
JUICES & DRINKS - SHELF STABLE	145,181,712.0	-1	63,404,316.4	-2
FLAT WATER	123,379,489.0	2	92,264,886.0	2
CANDY CONFECTIONS	108,085,185.0	1	51,342,269.8	-3
MEAT STICKS & BEEF JERKY	75,392,546.0	9	20,956,481.6	3
AUTOMOTIVE CARE PRODUCTS	64,111,390.0	1	12,223,661.5	-2

▲ 에너지 드링크의 식을 줄 모르는 성장세. 저키류와 짠 스낵류의 지속적 성장도 편의점 업주에게는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소매업소가 다 마찬가지로이지만 온갖 상품을 다 취급하는 잡화상인 편의점은 상품군별 구색맞추기가 매출 증대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소비자들의 특정한 니즈 트렌드를 바탕으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결국 과학적 근거 자료를 토대로 삼아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이 주먹구구와 감으로 쇼핑해서 장사하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없다. 작년 한해 국내 편의점 채널에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거나 주목할 감소세를 기록한 10가지 상품군을 살펴본다. 자료는 닐슨 연구소의 금년 2월 기준으로 이전 52주 기록인데 그냥 2018년 한해 실적으로 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닐슨 연구소는 지금까지 편의점이 누려오던 강점을 앞으로도 계속 누릴 것이라는 장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소비자들의 쇼핑 행

태가 현장 쇼핑보다는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고 있고 경쟁 채널간의 중복 취급 영역이 넓어지며 저마다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편의점 영역만 놓고 보면 편의점 이용객들의 선호 제품이 온더고(on-the-go)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한다. 빠른 구입과 빠르고 편리하며 아무때나 장소 가리지 않으며 소비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 취향이 강세이다 보니 제조사나 공급사들도 이런 추세에 부응하고 있다. 여하튼 즉석 소비 스타일은 편의점만이 아니라 모든 소매 채널의 거역할 수 없는 트렌드이다.

취급하는 상품의 다양성은 또 어떤가. 엄청난 규모의 신상품들이 갖가지 디자인의 변화가 내용의 변화를 가미해서 시장에 등장한다. 이런 트렌드 가운데 2018년 등락폭이 큰 10대 상품군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상품 기획, 쉽게 말해 구색맞추기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10대 상품군의 매출은 거의 16억 달러에 육박한다. 에너지드링크(extreme energy drink)군이 무려 8%의 매출 성장을 보였고 소비 물량 역시 8% 성장했다. 10대 상품군에서 5가지가 음료 부문이라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현대 소비자들의 분주한 소비 풍토와 삶의 스타일은 수시로 수분을 보강할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순간 갈증을 해소하고 반짝 기력 회복을 위해 주변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곳을 방문하면 다양한 형태의 음료가 두루 구비돼 있기 때문이다. 강력에너지 드링크와 향가미 청량음료가 각각 3억과 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매출 성장률에서 향가미 청량음료의 성장은 2%인데 소비 물량면에서는 예상대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면에서 2% 증가는 웰빙 시대를 추구한다는 현대 소비자들에게 아직까지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에너지드링크는 간혹 성장세 둔화를 보이는 때도 있지만 편의점 음료부문에 있어 변함없는 매출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두 품목군 모두 스낵과 공합을 잘 맞추기 때문에 동반 쇼핑의 짝꿍이 된다. 청량음료든 에너지 드링크이든 스낵하고 음료 하나를 집어드는 일상적 쇼핑 패턴인데 주로 세끼 주식의 사이 시간에 살짝 공복감이나 입이 심심해서 사먹는다고 보면 된다.

표를 보면 주스/드링크류(*생수 포함)는 매출면에서 1억 4,600만 달러이며 1%가 줄었고 소비 물량면에서도 2%가 줄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카테고리리를 견인했던 코코넛 워터가 각종 영양성분이 가미된 강장수(enhanced water)에 밀리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분석된다.

코코넛 워터의 작년 매출은 약 326만 달러로 이전 해와 비교해 무려 9%가 감소했다. 현대 소비자들의 음료에 대한 접근 자세가 과거에는 갈증 해소에 뭔가 허전함을 충족시키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효용가치였다면 지금은 명확한 목적의식적 소비에 부합하는 음료를 선택하면서 동시에 가볍고 청량감을 줘야 한다. 생수가 바로 달라진 이 세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데에 안성맞춤이다. 음료산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생수에 주목할 이유다.

생수 이야기를 좀더 보태자. 탄산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고 있는데 웰빙에 대한 관심 증대와 맥을 같이 하는 현상이다. 여기다가 기분전환에

흥미로운 향이나 맛이 가미된 응용작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호기심까지 촉발하는 효과도 있다.



▲ 수년 전까지만 해도 대박을 치며 생수 시장을 견인했던 코코넛 워터가 매출 급락하며 여타 강장수들이 선두를 치고 나오고 있다. 음료 시장 트렌드의 변화 무쌍함을 코코넛 워터 시장을 보면서 실감하게 된다.

매출 증대를 위한 편의점 업주들의 전략은 단골 손님을 중심에 놓고 짜여져야 한다. 단순한 음료 이상의 것에 기대를 가지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자신이 애호하는 소비 음료에 짝을 맺을 주전부리에도 관심을 주는 부류이다. 그래서 제품 구색맞추기가 중요하다. 장바구니가 커지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제품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과 모던한 진열 분위기까지 가세하면 금상첨화다. 수차 반복 강조 되고 있지만 편의점 고유 영역이 무너져 가고 있다. 경쟁 채널들이 경계를 허물며 편의점 영역을 침범한지 오래됐으니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특단의 전략이 필요해졌다.

시장 환경이 이렇게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두 가지 강점은 스피드와 인간미다. 대형 수퍼마켓에서 어떤 종업원하고 손님이 한담을 나눌 수 있는가. 경쟁력을 높일 가능성은 이 두가지 이외에는 없다. 다만 경계 허물기로 인한 불리한 여건은 제품 믹스(product mix)의 합리성을 높임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건강, 웰빙에 걸맞는 제품, 특히 음료 품목군에서 이를 보강해줄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나 덧붙이자면 푸드 서비스와 관련해 이제 더이상 기본만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예를 들면 남들 다 하니 커피라도 취급하자고 하며 그저 그런 구색맞추기 수준의 커피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 신선하고 친환경적인 요소가 부가돼야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남보다 앞설 수 있다.

샌드위치를 보자. 편의점과의 경쟁 채널들이 신선한 샌드위치를 취급하고 있다. 스시에 식도락 취향의 프리미엄급 간편 먹거리가 다양하게 취급되고 있다. 퇴근길에 하나 사들고 집에 가서 너끈히 저녁 한끼를 해결하고 있다. 투명한 용기에 먹음직스럽고 영양가도 듬뿍 담긴 먹거리라는 인상을 줘야 한다.

끝으로 어떤 식음료를 취급할 것이냐 업소 레이아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는 주제들 말고도 챙겨야 할 것이 디지털 시대를 호응하는 것이다. 물론 독립 편의점의 영세성을 고려하면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여력이 되고 뭔가 비약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비즈니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보겠다고 SNS에 기반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도 염두에 둘 과제다. 소비자들의 쇼핑과 구매 습관이 보다 개성 중심주의로 변화되고 있으니 이에 부응하겠다는 자세가 절실하다. ■

흡연구역 둘러싼 유해성 논란 증폭

모국, 베이핑 카페 우후죽순

모 방송이 전한 영상 장면을 보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내부 일정 공간이 유리문을 차단벽으로 해놓고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전자담배만 피울 수 있다는 알림 표지판이 테이블마다 부착돼있다. 환풍기는 별도 설치돼 있지 않고 유리 창문만 개폐 가능하다. 일반담배 흡연실하고는 구조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전자담배 전용 공간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일반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아 좋다”, “이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냄새가 싫다.”는 호감파가 있는가 하면 “냄새만 조금 덜한 것뿐이지 건강에 나쁜 것 똑같다.”, “시장 마케팅 차원의 목적외에 달리 뭐가 있다.”고 꼬집어 말하는 비호감파도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별도의 흡연실 전용 공간 설치 비용을 해당 전자담배 수입 업체가 맡는다. 한 수입업체가 시설공사를 맡아 운영되고 있는 전자담배 흡연실은 70 곳이 넘는다고 한다. 이 업체 관계자는 “세일즈 마케팅용으로 시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금연을 하지 못하는 흡연자들에게 덜 해로운 전자담배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해당 흡연실에 대한 규제 검토에 착수할 모양이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현행법 상 위반이 되는지 법률 자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담배 회사는 문화, 체육, 음악 이런 행사 외에는 후원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모국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실내 흡연실을 모두 없앨 계획인데 이런 방침에 역행하듯 전자담배 흡연실이 자꾸 늘어나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 필립모리스 코리아와 커피빈 코리아가 커피숍 매장 내부 일부 공간을 전용 베이핑 룸을 만드는 것에 상호 합의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지난 6월 중순 강남지역 두곳에 시범 베이핑 룸을 오픈했다. 밑의 사진은 베이핑 룸의 실제 모습이다.

최근 모국에서는 전자담배 전용 카페, 즉 베이핑 카페(vaping cafe), 베이핑 룸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어가 되고 있는데 전자담배를 피울 수 있는 전용 공간을 일컫는 말이다. 마치 커피숍에서 다양한 커피를 즐기는 것에 비유한 표현이다. 그런데 유해성 검증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전용 실내 공간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 사회적 우려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자담배 즉 베이핑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한쪽 공간을 베이핑 카페로 인테리어 해서 베이핑 제품을 즐기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이름은 카페지만 커피 등 음료는 팔지 않는다. 매장 직원은 “음료까지 제조해서 팔면 요식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건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카페나 식당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예외적으

경비 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
기존 공간 임대수익 연 6만불 기대

협회 / 조합 직원 한식구 7월 19일부터



▲ 협회 직원이 이전할 조합 사무실 내부 모습

협회가 이전 준비로 한창 바쁘다. 현 175 The West Mall 주소의 협회가 169 The West MALL의 조합 사무실로 이사를 하기 때문이다. 멀리가는 것도 아니며 한공간의 주소만 다를 뿐이지만 그래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 보니 협회와 조합 안팎으로 관심들이 크다.

실험 직원과 조합 직원이 한 사무실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오피스 시절에도 두 조직의 사무 직원들은 오랜 세월 함께 일한 적이 있었고 조합 사무실이 현재의 웨스트 몰로 옮긴 이후에도 2010년에 협회가 이곳으로 따라와 1년 채 못되는 기간 동거생활을 한 바 있었다.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여러모로 많았던 것은 겪어본 임.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두 조직의 물리적 통합은 전임 오승진 회장 시절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화학적 통합이 법적으로 순탄치 않고 협회의 조합 위임경영 또한 틀어지면서 한동안 통합 운운하던 것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다가 신재균 회장이 취임하면서 최소한 직원들의 물리적 통합만이라도 해서 업무 효율성과 고정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에서 재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바일 매각으로 조합 매장 1원화가 됐으며 결정적으로는 조합 소유의 현 웨스트몰 건물이 협회로 매

<13면에 이어> 편의점 술판매, 현장 목소리 원탁회의

회의를 시종일관 경청한 베쓰렌펠비 회장은 참고할 중요한 의견들을 많이 들었다면서 정책 구상에 최대 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원탁회의에서는 참석자들끼리도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협회는 최근 UKCIA 임충 및 경제세미나 관련한 오타와 출장 시 편의점 술판매 현황 파악을 위한 퀵백주 시찰 체험담도 들려줘 큰 주목을 끌었다.

온주 재무위원회는 일반 부처와 동격이기 때문에 수장도 장관급이다. 회장은 피커링 지역 초선 의원이며 작년 총선에서 압도적 표 차로 당선됐다. 회장은 컨비니언스 유(Convenience U) 행사 전야제인 3월 5일 갤러쇼 행사의 초청 연사로 온주 편의점 업계와 공식적 접촉을 가지게 됐다.

당시 행사장에서는 역시 초선 의원이자 회장의 의정담당 보좌역인 스텐 조 의원도 함께 했는데 신회장과 베쓰렌펠비 회장이 함께 사진도 찍고 현안 문제를 가지고 담소도 나누면서 인연을 맺은 바 있어 7월 9일 회의에서는 구면으로 만났다. ■

<16면에 이어> 모국, 베이핑 카페 우후죽순

로 따로 공간을 분리해서 흡연실을 운영할 수는 있다. 그런데 한쪽 공간에 몰담배(후카)를 피우는 손님들이 북적인다. 법으로는 담뱃잎으로 제조된 제품만 담배로 취급해 금연 통제를 할 수 있어 몰담배나 전자담배는 통제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현재 모국에는 30여 종 이상의 전자담배가 애용되고 있고 특히 쉐련형 전자담배는(예, 아이코스) 지난해 전체 전자담배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넘겼다. 올 상반기 9천만갑 이상이 팔리면서 폭발적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시장 점유율 90%에 청소년 유해문제로 아직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주울(JUUL)이 이미 지난 5월에 출시됐다. 한 학부모의 증언을 들어보면 확실히 걱정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학생들이 아예 거리에 들고 다니며 피운다. 수업 시간에 대놓고 피우다가 난리가 났다.”

6월 들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식품의약품처는 문제의 전자담배들의 성분 검사에 착수했지만 정확한 유해성 분석이 완료되려면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유해성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전자담배의 실제 분석이 진행 중인 것은 북미주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이며 청소년과 관련한 우려 제기도 똑같이 겪는 현상이다. ■

각되면서 사무 직원의 한공간 근무는 신 회장의 확고부동한 정책이 됐다. 이전일은 공식적으로 7월 19일(금)이다.

한편, 조합 사무실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사무실 공간 약 4,500 평방피트는 세를 놓게 된다.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북미주에 수백개의 유아 놀이센터 수백개를 운영하는 프랜

차이즈 회사 마이짐(My Gym)에서 사람들이 다녀 갔고 계약이 체결 직전이다. 수입은 대략 연간 6만 달러 전후가 된다.

본부협회 신재균 회장은 “두 조직의 직원들이 화합해서 동반 성장할 것이고 비게 되는 사무실로부터 6만 달러의 임대수익이라는 실리까지 챙기니 통합은 일석이조”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

조합 골프대회

고객사은 개념 첫 도입

협동조합 주관 골프대회가 면모를 일신한다. 조합 임원들과 공급사간의 친목 다지기라는 기존의 취지에 고객사은의 개념을 올해 행사부터 추가한다. 임원 중심이 아니라 조합 쇼핑 많이 해서 경제적으로 실익을 안겨주는 조합원을 행사의 중심에 놓자는 발상의 전환이다. 그렇게 해서 올해 행사에는 쇼핑액 상위 랭킹 순으로 20명을 초대했고 공급사들에게도 왕고객 조합원들과의 유대관계를 맺을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행사 초청 대상자가 뚜렷한 원칙이 없이

평소 친소관계에 의해 임의적으로 선택되는 불합리를 시정하지는 협회 신재균 회장의 평소 소신이 행사의 개선을 도모하려던 조합 운영이사장단의 입장과 합치하면서 이같은 기준을 정하기에 이르렀다. 총 60명이 이 토비코 소재 Royal Woodbine Golf Club에서 행사를 치른다.

조합 측은 고객을 한인과 비한인을 구분하지 않고 쇼핑액 순위로만 초청한 것에 의미와 내실이 있음을 강조했다. ■



K.B.A. 협동조합

■ K.B.A. 운영 이사장 : 신영하 (Youngha Shin)
K.B.A. 부이사장 : 심기호 (Kenny Shim)

■ K.B.A. 운영이사 (가나다 순)
김대영 (Dae-Young Kim)
송명현 (Myeonghyeon Song)
신재균 (Jae Gyun Shin)
이두승 (Doo-Seung Lee)
이만석 (Man Suk Lee)
허창훈 (Chang-Hoon Huh)

■ K.B.A. 감사 (가나다 순)
백사열 (Sah-Yeal Paik)
장해민 (Hae Min Jang)

■ K.B.A. 총괄부장 : 권혁선 (Hyuk Sun Kwon)
■ K.B.A. 사무장 : 배 줄리아 (Julia Bae)
■ K.B.A. 협동조합 사무실
Tel (416) 789 - 7544
Fax (416) 789 - 5013
■ K.B.A. 협동조합 매장
Tel (416) 867 - 1444

blu

STAGE 1

BLU ASSORTMENT-PODS STARTER KIT
device, charging cable and two pods (tobacco & menthol)
소매마진 25%

SPECIAL OFFER \$17.99

BLU ASSORTMENT-PODS POD PACKS
available in both 24mg/ml and 48mg/ml NIC strength
\$12.99 (MSRP)

my blu INTENSE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 KBA 협동조합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416) 867-1444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800) 387-0104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905) 568-7909
 (800) 387-8400
 Saint Jimmy's Coffee Service ----- (416) 250-9427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 스낵

Frito Lay Canada ----- (905) 460-2414
 South Cove ----- (905) 829-3666
 Conagra Brands Canada ----- (416) 679-4200

■ 샌드위치

Classic group of companies ----- (866) 760-1926
 A Biz Gourmet(Shirley 부사장) -----(866) 760-1926

■ Meat Jerky

Great Canadian Meat ----- (905) 666-9395
 Conagra -----1- (888) 639-7868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 (800) 500-5634
 Mars Canada Inc -----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 (416) 442-3298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 ATM / Debit

Touch Cash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1- (877) 789-5335
 1Solution -----1- (888) 554-7355

■ 잡지

Metro 360 ----- (416) 285-2050
 News Group ----- (905) 681-1113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 (905) 272-4339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 (416) 250-3550
 외환은행 ----- (416) 222-5200
 이방록(회계사) ----- (416) 221-2009
 박효진(보험중개인)----- (416) 985-5287

■ 언론사

한국일보 ----- (416) 787-1111
 중앙일보 ----- (416) 736-0736
 Globe and Mail -----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 (416) 367-4500
 Toronto Sun ----- (800) 668-0786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 (416) 909-7114

■ 광고 미디어 전문 대행 회사

Adapt Media ----- (416) 856-4466

■ 기타

Kocom -----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DavidWholeSale ----- (416) 419-3751
 78 Trading ----- (437) 777-7878
 Yeno Trading ----- (647) 967-6561
 용역 회사 Tyson Lee ----- (647) 545-0922
 Atlantic Prepaid Card ----- (888) 479-7779





Sincere Trading of KBA
West Mall Branch

Special Sale JULY



Excluding
Java Flavour
Bottles

Monster
444/473ml **Spe.\$21.99**



9⁹⁹

Snapple
Snapple 12/473ml All Flavours
Reg.\$12.55 **Spe.\$9.99**



2⁷⁹

13⁴⁹

Nestle Purina
Beggin Strips Dog Treats 170g All Flavours Reg.\$3.15 **Spe.\$2.79**
Friskies Wet Cat Food Reg.\$16.09 **Spe.\$13.49**



35⁹⁹

Red Bull
24/250ml Original Only Reg.\$39.99 **Spe.\$35.99**
24/355ml Original Only Reg.\$60.99 **Spe.\$57.99**

18⁹⁹



Fiji
24/500ml Reg.\$24.49 **Spe.\$18.99**
12/1L Reg.\$22.29 **Spe.\$16.99**
12/1.5L Reg.\$26.69 **Spe.\$19.99**



3²⁹

1⁵⁹

2⁴⁹

Smuckers DLM
PUP-peroni 75g All Flavours Reg.\$1.79 **Spe.\$1.59**
PUP-peroni 158g All Flavours Reg.\$2.75 **Spe.\$2.45**
Jerky Treats 170g All Flavours Reg.\$2.75 **Spe.\$2.49**
Alley Cat 2kg Reg.\$3.69 **Spe.\$3.29**
Meow Mix Original Choice 500g Reg.\$2.25 **Spe.\$1.89**
Meow Mix Original Choice 2kg Reg.\$6.49 **Spe.\$5.39**
Milkbone 113g All Flavours Reg.\$1.85 **Spe.\$1.59**



Vidal Candy

1.2kg All Flavours Reg.\$7.49 **Spe.\$6.49**

6⁴⁹



13⁹⁹

4¹⁹

C.B Powell

Blue Diamond 170g All flavours Reg.\$6.89 **Spe.\$4.19**
 Blue Diamond 12/43g All flavours Reg.\$21.49 **Spe.\$13.99**



2⁸⁵



2⁸⁵

Mondelez

Chips Ahoy 300g All Kinds Reg.\$3.25 **Spe.\$2.85**
 Oreo 300g All Kinds Reg.\$3.25 **Spe.\$2.85**



22⁹⁹

Cadbury

Single Bars All Kinds Reg.\$23.99 **Spe.\$22.99**



1⁸⁹



1⁶⁹

Dare

Real Fruit Gummies 50g-55g All Flavours Reg.\$16.35 **Spe.\$11.35**
 Real Fruit Gummies 140g-180g All Flavours Reg.\$2.05 **Spe.\$1.89**
 Traditional Candy Pegtop 200g-250g All Kinds Reg.\$1.89 **Spe.\$1.69**



1⁹⁹

Kellogg's

Pringles 148g - 156g All Flavours
 Reg.\$2.39 **Spe.\$1.99**



17²⁹

12⁹⁹

18⁵⁹

Regal

Dubble Bubble Asst Twist Wrap Bag Reg.\$14.49 **Spe.\$12.99**
 Juicy Drop Pop Reg.\$19.19 **Spe.\$17.29**
 Dubble Bubble Gumball Machine Reg.\$20.99 **Spe.\$18.59**
 Dubble Bubble Jackpot Gumball Machine Reg.\$25.29 **Spe.\$22.29**

2⁸⁹

SUMMER SALE!



Maple Leaf

Schneiders Red Hot Weiners 375g **Spe.\$2.89**
 Schneiders Regular Weiners 375g **Spe.\$2.89**
 Schneiders All Beef Weiners 375g **Spe.\$3.79**
 JMS Grillems 375g All kinds **Spe.\$3.79**
 JMS Juicy Jumbos 450g **Spe.\$3.79**

3⁷⁹



C.B Powell

Sugar Twin Packets 50's Reg.\$1.49 **Spe.\$1.39**
 Sugar Twin Packets 100's Reg.\$2.85 **Spe.\$2.59**



Clover Leaf

Brunswick Seafood Snacks 92g - 100g All Flavours Reg.\$1.55 **Spe.\$1.25**
 Brunswick Sardines 106g All Flavours Reg.\$1.35 **Spe.\$1.19**
 Value Added Tuna 85g All Flavours Reg.\$1.65 **Spe.\$1.45**
 Skipjack Tuna 170g All Kinds Reg.\$1.99 **Spe.\$1.45**
 Premium light Yellow tuna 142g All Kinds Reg.\$2.19 **Spe.\$1.69**



Green Giant

Canned Vegetables 341~398ml
 All Kinds Reg.\$1.49 **Spe.\$1.29**



Hunts

Hunts Pasta Sauce 680ml
 All Flavours Reg.\$1.99 **Spe.\$1.19**



C.B Powell

Stagg Chili 425g All Flavours Reg.\$2.85 **Spe.\$2.59**



Bertolli

Olive Oil 250ml Classico & Extra Light
 Reg.\$3.55 **Spe.\$3.19**
 Olive Oil 250ml Extra Virgin
 Reg.\$3.75 **Spe.\$3.29**
 Olive Oil 500ml Classico & Extra Light
 Reg.\$5.25 **Spe.\$4.95**
 Olive Oil 500ml Extra Virgin
 Reg.\$5.55 **Spe.\$4.95**



Conagra

Chef Boyardee 411g-425g
 All kinds Reg.\$1.69 **Spe.\$1.09**



Redpath

Sugar 10/2kg
 Reg.\$23.99 **Spe.\$18.99**



McCain

French Fries 900g Reg.\$2.69 **Spe.\$1.99**
 Xtra Crispy Fries 650g Reg.3.09 **Spe.\$2.49**
 Premium Super Fries 650g Reg.\$3.09 **Spe.\$2.49**
 Xtra Crisp Seasoned Fries 650g Reg.3.09 **Spe.\$2.49**
 Deep'n Delicious Cakes 510g Reg.4.79 **Spe.\$3.99**
 Deep'n Delicious Fruit Pies 680g Reg.4.79 **Spe.\$3.99**
 Delicious Cream Pies 400g Reg.4.79 **Spe.\$3.99**
 Pizza Pocket 3pack Reg.3.49 **Spe.\$2.49**



Sara Lee

Cheese cake 538g Strawberry & Cherry Reg.\$4.99 **Spe.\$3.59**
 Oven fresh Pies 1.04kg All Flavours Reg.\$5.29 **Spe.\$3.59**
 Pound Cake 304g Reg.\$3.59 **Spe.\$2.79**
 Cream Pies 55g - 765g All Flavours Reg.\$6.99 **Spe.\$4.69**



Cascades

April Soft Bathroom Tissue 4's Reg.\$21.49 **Spe.\$19.49**
 Fiest Paper Towel 2'S Reg.\$19.99 **Spe.\$17.99**

Always

- Always Ultra Slender w/ Flexi-wings 18's 4.69 **3.95**
- Always Ultra Regular Thin w/ Flexi Wings 10's 3.09 **2.95**
- Always Ultra Overnight w Flexi Wings 14's 4.69 **3.95**
- Always Ultra Regular w/ Flexi Wings 18's 4.69 **3.95**
- Always Thin Ultra Long w/ Flexi wings 16's 4.69 **3.95**
- Always Ultra Regular 22's 4.69 **3.95**
- Always Thin Maxi Regular w/Flexi wings 10's 3.09 **2.95**
- Always Maxi Regular w/Flexi wings 18's 4.69 **3.95**
- Always Maxi Overnight 14's 4.69 **3.95**
- Always Ultra Thin Long w/ Flexi wings 14's 4.69 **3.95**
- Always Ultra Thin Reg 16's 4.69 **3.95**
- Always Ultra Thin Long 20's 4.69 **3.95**
- ALWAYS RADIANT INFINITY REGULAR PADS**
- Flexi Wings 12pk 4.69 **3.95**
- Flexi Wings 16pk 4.69 **3.95**
- Reg 64pk 4.69 **3.95**
- ALWAYS THIN/MINCE FLEXI-STYLE**
- Pantiliners 60's Unscented 60pk 4.69 **4.09**

15.19



Tampax

Regular 10's Reg.\$16.89 **Spe.\$15.19**
 Super 10's Reg.\$16.89 **Spe.\$15.19**
 Super Plus 10's Reg.\$16.89 **Spe.\$15.19**



124.99

Cricket Lighters Pre Pack



West Mall Branch

169 The West Mall, Etobicoke
 T(416)867-1444 / F(416)789-5013

Business Hours

- Mon. 06:30 - 17:00
- Tue. 06:30 - 17:00
- Wed. 06:30 - 17:00
- Thur. 06:30 - 17:00
- Fri. 06:30 - 17:00
- Sat. 06:30 - 16:00
- Sun. 11:00 - 17:00**



2019 6.30~8.3



Doritos XL 2/\$7⁵⁰



Lay's / Doritos 2/\$3



Spitz 2/\$4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9년 6월 30일부터 2019년 8월 3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스페셜 상품들은 OKBA프로그램 스토어에도 적용됩니다.



- 최소 주문량 \$50
-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ca or Phone 1-866-404-8881

Happiness is simple